

'96부산국제 식품 및 포장기술전

갈수록 인기 시들...전시업체들 “별 효과없어 다음번 참가는 회의적”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은 지난 6월5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무역전관에서 '96부산국제 식품 및 포장기술전(POFAS '96)을 개최했다.

식품산업설비 현대화를 통한 제품 고도화를 실현하고 국내의 우수식품 비교 전시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POFAS는 지난 94년에 첫 전시회를 시작한 이후 매년 개최,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했다.

6월 9일까지 5일동안 980명의 전시장에 식품관련산업 76개업체가 참여한 POFAS '96은 제과·제빵·피자 등을 비롯한 일반식품관, 제과제빵기계·커피·제빙기·주방기기 등 각종 식품장비가 선보인 식품기, 계관, 영남 부산지역을 비롯 포장업체들이 참여한 포장기계관 등 3개관 160여개 부스가 전시 운영됐다.

베이커리업체와 관련된 회사로는 청산무역 영남지사인 금호무역이 쇼케이스·믹서기·급속냉동고·제빙기를, 대성코리아가 도우컨디셔너·제빙기·빙삭기·주스냉각기, 부산에서 수입원부재료 중도매업을 하는 보우인터내셔널이 빵·과자에 쓰이는 수입원부재료를 선보였으며 특히 실연을 통한 관측활동도 벌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피자장비업체로 대표되는 오진양행이 링컨사의 열풍식 콘베어 오븐과 헤니페니 압력식 튀김기 그리고 날개상품을 포장할 수 있는 소형 포장기를, 수입장비취급업체인 보성무역이 스파이럴믹서, 샐러드냉장고와 특히 패스트푸드업체들의 관심을 끈 쓰레기압축기를 전시했고 이외에도 원두커피기계의 나이스, 후로즌요구르트의 한국아미비요크, 소프트아이스크림기계의 한이통상, 제빙기 빙수기 등의 한신기업, 한주계열의 동규제과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POFAS '96은 서울 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부산에서 열린 국제식품전이라는 점에서 첫해에는 관련업체의 관



◀실연을 통해 가장 활발한 관측을 한 보우인터내셔널. 전시장 중앙에 위치했으나 통로가 무척 한산하다.

심을 끌었으나 전시장의 위치가 좋지 못해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참관도 무척 저조, 대부분의 참가업체들은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전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참가업체들의 규모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시상품도 별로 없고 업체들 역시 POFAS '96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눈치여서인지 전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한산한 느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수입장비 전문업체의 관계자는 “올해 처음 참가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다음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해 이러한 난제와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음번 개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OFAS가 시작된 지난 94년에는 베이커리업체쪽으로는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 파리카라상 등이 참여, 영남지역 가맹점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관측에 임했으나 올해에는 동규만이 담당자도 없이 가맹점 상담이라는 안내판만 놓고 실제로는 한주에서 생산된 음료관측에 더 힘을 쏟고 있었고, 유니온무역 등 잘 알려진 수입 및 국산장비업체들의 경우 일부만 부산지역 거래선을 이용, 소극적인 자사제품 알리기를 하고 있어 지방개최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지방자치로 퇴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K]



▲한주계열의 동규는 가맹점상담보다 오히려 한주에서 나오는 음료관측에 더 중점을 두는 눈치. ▲후로즌요구르트의 한국아미비요크. 장비 선전과 함께 영남지역 가맹점 확산에 주력.